

# 하녀의 역사를 왜 다시 써야 하는가?

## - 아카이브 읽기와 메타적 역사 쓰기의 가능성

장영은\*

1. 아카이브가 기록하는 하위주체
2. 노예제의 사후세계와 하녀의 위상
3. 여성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4. 메타적 역사 쓰기의 전망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로서 하위주체 읽기를 시도한 소영현의 『하녀-빈곤과 낙인의 사회사』(2024)에 주목하며, 사이디아 하트만(Saidiya Hartman)의 글들을 소영현의 『하녀』와 겹쳐 읽어보고자 한다. 하트만은 현대 사회에 잔존 중인 노예제의 인종 차별적 폭력을 ‘노예제의 사후세계(the afterlife of slavery)’로 개념화하며, 흑인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이 아카이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영현은 한국 사회에서 하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역사적인 경위를 추적하며 아카이브 다시 읽기를 시도했다. 아카이브가 전하는 공식 기록 너머의 억압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하위주체들의 서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영현과 하트만의 연구는 공통적이다. 하트만은 흑인 노예제 아카이브를 어떻게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읽어낼 것인가를 질문하며, 아카이브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사유해왔다. 소영현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하녀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 온 이유는 하녀의 삶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아카이브를 다시 읽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내몰린 타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윤리적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하녀-빈곤과 낙인의 사회사』(2024), 소영현, 사이디아 하트만, 아카이브, 노예제, 메타적 역사 쓰기)

## 1. 아카이브가 기록하는 하위주체

영화 <헬프>(2011)는 1960년대 초반 미국 미시시피 주의 잭슨에서 흑인 가정부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책으로 묶어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sup>1)</sup> 1960년대 잭슨에서는 인권운동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1963년 미시시피 잭슨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던 37세의 메드가 에버스가 암살당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sup>2)</sup> 영화 <헬프>는 이 시기 미시시피 잭슨에서 흑인 가정부들이 겪은 차

1) 영화 <헬프>는 캐스린 스토킷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스린 스토킷, 『헬프1·2』, 정연희 역, 문학동네, 2011 참조.

2) 제임스 볼드윈은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연속적으로 암살당했던 사건 즉 메드가 에버스, 말콤 엑스, 마틴 루터 킹의 암살사건이 자기 삶에 미친 복합적인 영향을 <리멤버 디스 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1960년대에 암살당한 세 친구들을 경유해 미국 사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던 제임스 볼드윈의 미완의 글은 라울 팩 감독에 의해 에세이 필름이자 전기영화인 <아임 옛 낫 유어 니그로>로 완성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볼드윈·라울 팩, 『아임 옛 낫 유어 니그로』, 김희숙 역, 모

별과 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유지니아 스키티는 세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책을 써 뉴욕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운다. 미시시피의 흑인 가정부들이 겪어 온 차별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면 출판을 고려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스키티는 흑인 가정부들에게 인터뷰를 제안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흑인 가정부들은 르포 형식의 글이 출간되면 자신들의 신변에 큰 위험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스키티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올 메이 데이비스의 체포 사건을 목격하면서 흑인 가정부들은 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75달러를 구하지 못해 아들의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데이비스는 청소 도중 가구 밑으로 떨어진 반지를 발견하고 고심 끝에 전당포로 향했지만, 흑인 가정부가 가져온 반지를 수상쩍게 여긴 전당포 주인은 데이비스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근길에 데이비스가 모욕적으로 체포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흑인 가정부들은 스키티에게 자신들의 생애를 기록하도록 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전하게 살고자 했던 흑인 가정부들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꾼 것일까? 흑인 가정부들은 데이비스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백인 고용주의 반지를 훔친 흑인 가정부의 절도사건 관련 자료는 국가기관에 보관될 것이 분명했다. 흑인 가정부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만 호명되어 범죄자로만 역사에 기록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데이비스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

---

던아카이브, 2023 참조.

었다.

역사의 기록물로 남게 되는 판결 자료가 흑인 가정부들의 삶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을 범죄자로만 호명한다면 흑인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헬프〉에서는 흑인 가정부들의 말과 글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전복적인 가능성을 긍정하며, 구술 생애사 작업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의 가치를 옹호한다. 역사에 범죄자로만 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영화 속 흑인 가정부들을 한 자리로 모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영화에서처럼 하위주체의 자기서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극히 드물다는 데 있다. 발화의 기회를 가까스로 얻게 된 극소수의 하위주체가 남긴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발화의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는 대다수 하위주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져본다. 하위주체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위주체에 관한 기록은 아카이브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위주체의 존재를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 하위주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구성하고 성찰하는 행위는 긴요한 만큼이나 매우 어렵다. 아카이브를 다시 읽는 일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주체의 역사를 해체적으로 읽으면서 아카이브의 진실성을 탐문하는 연구자들의 글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로서 하위주체 읽기를 시도한 소영현의 『하녀-빈곤과 낙인의 사회사(2024), (이하 『하녀』로 표기)』와 사이디아 하트만(Saidiya Hartman)의 글들을 겹쳐 읽으며, 아카이브 읽기와 메타적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사유해보고자 한다. 아카이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왜 아카이브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하트만은 흑인 노예제 아카이브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해 노예

제 이후의 흑인들의 존재 양식을 사유했다. 이와 같은 하트만의 관점은 소영현의 저서 『하녀』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한국 사회에서 하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역사적인 경위를 추적하는 소영현의 아카이브 다시 읽기가 메타적 역사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며, 소영현의 『하녀』를 하트만의 글들과 겹쳐 읽어보겠다.<sup>3)</sup>

## 2. 노예제의 사후세계와 하녀의 위상

하트만은 현대 사회에 잔존 중인 노예제의 인종 차별적 폭력을 ‘노예제의 사후세계(the afterlife of slavery)’로 개념화하며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노예제도는 인간의 척도와 삶과 가치의 서열을 정했고, 그 서열은 아직 공고하다. 노예제도가 흑인의 정치적 삶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라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고통스러운 집착이나 너무 오래된 기억에 대한 영향 때문이 아니라 수세기 전에 고착화된 인종적 계산과 정치적 산술에 의해 흑인의 삶이 여전히 위태로우며 평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로 인해 왜곡되고 박탈당한 삶의 기회, 조기 사망, 수감, 빈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예제의 사후세계(the afterlife

3) 소영현, 『하녀-빈곤과 낙인의 사회사』, 문학동네, 2024(이하 소영현, 『하녀』로 표기), Saidiya Hartman,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Farrar Straus & Giroux, 2008, “Venus in Two Acts”, *Small Axe* 26, June 2008, pp.1-14, “Venus in Two Acts”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아래를 참조하되, 이 글의 사이디아 하트만의 인용문은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사이디아 하트만, 『두 행위의 비너스』, 정규식 역, <https://en-movement.net/436>, <https://en-movement.net/437>, *Wayward Lives, Beautiful Experiments: Intimate Histories of Social Upheaval*, W. W. Norton & Company, 2019, *Scenes of Subjection: Terror, Slavery, and Self-Mak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 W. Norton & Company, 2022.

of slavery)이다.”<sup>4)</sup> 하트만에 따르면, 노예 해방 이후 제정된 흑인 단속법(Black Codes)으로 ‘해방된 노예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는 없어졌지만, ‘노예제 이후’의 흑인들은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종속적인 계약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하트만은 노예제도가 흑인에게 예속을 의미했다면, 노예 해방은 흑인이 빚에 속박되어 경제적 약탈의 희생자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sup>5)</sup>

이와 같은 관점은 소영현의 ‘아카이브로서 하녀 읽기’에서도 확인된다. 『하녀』 프롤로그에서 소영현은 “법률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된 근대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하녀의 위상을 가진 이들이 사라진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형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신분사회적 성격은 역설적으로 더 강화되었다. 특정 직업이나 존재방식으로서의 하녀가 아니더라도 은밀하게 공고해지는 신분사회의 위계구조 속에서 상징적 의미로서 하녀의 삶을 사는 이들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넘쳐난다.”<sup>6)</sup>는 진단과 더불어 “하녀는 신분 해방이 이루어진 시대의 현대판 노예에 다름 아니었다.”<sup>7)</sup>는 주장을 펼쳤다.

『하녀』에서 여성노동의 임금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에 착수한 소영현은 하녀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하녀 자

---

4) Saidiya Hartman.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Trade Route Terror*.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p. 6.

5) 이와 관련해서는 Saidiya Hartman, *Scenes of Subjection: Terror, Slavery, and Self-Mak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 W. Norton & Company, 2022, 한국의 성매매 산업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부채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대출로 작동하는 금융화의 맥락 안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김주희, 『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현실문화, 2020 참조.

6) 소영현, 앞의 책, 14쪽.

7) 소영현, 앞의 책, 50쪽.

료가 품고 있는 압도적 슬픔을 옮겨 적는 일” 혹은 “자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시공간적 주석을 덧붙이려는 일”이 연구의 목표가 아님을 명시한 다음, 아카이브로서 하녀 읽기를 “아카이브가 전하는 진실성에 가닿고자 하며 이를 가시화하려는 시도”<sup>8)</sup>로 소개했다. 하트만 역시 농장 일지를 비롯한 농장 운영 관련 문서, 신문 기사, 선교사 전도지, 기행문, 정부 보고서 등과 같은 아카이브의 야만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아카이브 다시 읽기를 실천했다. 하트만은 공식적인 기록물을 통해 노예들의 경험을 완전히 복원시킬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키며, 아카이브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소영현 또한 깊은 침묵의 상태에 빠진 젠더화된 하위주체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재추적하며 “계급 담론과 여성 담론이 교차하고 재배치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새로운 하위주체론”<sup>9)</sup>을 구축 중이다.

미국의 노예제도와 성폭력의 법적 역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에밀리 오웬스(Emily A. Owens)의 관점 또한 하트만과 소영현의 연구 방법론과 교차성을 가지고 있다. 오웬스는 노예제도를 비롯한 법적 구조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역사적 단계마다 친밀성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형성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특히 미국 남부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노예제 아래에서 성 노동을 강요받은 뉴올리언스의 흑인 여성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흑인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법적 개념을 비판한다.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동의 개념을 해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채 당시 노예제 하의 법과 사회적 규범을 해석하면, 백인 남성들이 흑인 여성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었던 허용적인 사회 구조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오웬스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동의라는

---

8) 소영현, 앞의 책, 21쪽

9) 소영현, 앞의 책, 23쪽.

법적 개념은 억압적인 환경에서 성적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오웬스의 주장이다.<sup>10)</sup> 법률은 노예제도와 가부장제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흑인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오웬스의 관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왜 하녀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사회의 위계화 구조와 연결시켜 분석하는 소영현의 연구와 공명한다. 물론 오웬스와 소영현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지만, 소영현의 하녀 연구 더 정확하게는 아카이브로서 하녀 읽기 작업과 노예제 시대의 흑인 여성들에 관한 메타적 역사쓰기의 교차성은 우연적인 결과로 볼 수 없다. 『하녀』 1부 「그녀들은 누구인가-하녀의 위상학」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단서가 일부 기술되어 있다. 소영현은 18세기 프랑스 파리의 형사사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여성, 빈민, 대중 행동 등의 주제를 연구해온 아를레트 파르주(Arlette Farge)의 말을 인용한다. 아카이브에는 “즉각 주석이 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기 마련”이고, “겸손한 태도로 아카이브가 전하는 바를 고스란히 옮겨두고 싶어지는 것”이야말로 유혹에 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sup>11)</sup>

소영현은 아카이브에 담긴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반복하고 강화시키는 결과를 경계하며 “진실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불편하며 대립과 충돌과 갈등의 지점에서 가시화된다.”<sup>12)</sup>고 강조했다는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 가운데 하나의 예시로 흑인 여성과 한국 근대 초기 하녀의 공통점을 꼽았다. “미국 196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영화 〈헬프〉에서 말하는 흑인 여성 하녀의 삶이 한국의 근대 초기 하녀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

10) Emily A. Owens, *Consent in the Presence of Force: Sexual Violence and Black Women's Survival in Antebellum New Orlean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3 참조.

11) 소영현, 앞의 책, 19쪽.

12) 소영현, 앞의 책, 20쪽.



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놀라는 동시에 놀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어린 소녀의 삶이 대개 그러하듯,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헬프〉의 어린 소녀 역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르는 하녀의 삶을 대를 이어 반복한다.”<sup>13)</sup> 〈헬프〉에는 흑인 가정부의 큰 딸로 태어나 학교를 그만두고 백인 가정에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는 10대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인집에서 온갖 노동을 하며 어렵게 돈을 벌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17명의 백인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웠지만 정작 자신의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은 〈헬프〉의 등장인물과 분명 닮은 면이 있다. 소영현은 “하녀의 삶이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삶을 다룬 기록이 유사한 것인지” 질문하며, “시대를 관통하고 국경이나 인종을 넘나들며 반복되는 빈곤한 여성의 참혹한 삶과 함께 재현되는 기록의 유사성에 생각이 머물게 된다.”<sup>14)</sup>고 통찰했다.

물론 미국의 흑인 여성 하녀의 삶과 한국의 근대 초기 하녀의 삶이 유사하다거나 상이하다거나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아카이브를 다시 읽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던진 나의 질문 즉 소영현과 하트만, 오웬스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자 했던 시도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소영현은 명쾌한 입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흑인 여성 노예들의 아카이브 다시 읽기와 한국 근현대 하녀의 아카이브 다시 읽기를 반(反)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사성이 두드러진 특징인 이 아카이브에 감춰진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어떤 비평적 해석의 지점이 숨겨져 있는가. 천편일률적인 포착 외에 무엇이 포착될 수 있으며 무엇이 포착되어야 하는 것일까.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자료의 아카이브 갈피에서 우

13) 소영현, 앞의 책, 24쪽.

14) 소영현, 앞의 책, 26쪽.

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sup>15)</sup> 소영현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바로 ‘하녀 아카이브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하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소영현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어디에나 있었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주인공인 적이 없었던 ‘하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옳겠다. 소영현은 한국 근현대 문학 작품에 하녀가 등장하지만, 왜 한 번도 하녀가 문학의 주인공인 적이 없었던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을 표출한다. 하녀는 왜 삶의 장면을 포착하는 문학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문학에서 주인공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는 하녀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소영현은 하녀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기보다 어떻게 해서 하녀가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녀를 하녀로 만드는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독해한다. 근현대 문학작품, 신문기사, 재판기록, 인터뷰, 일기, 편지, 구술 생애사 등의 아카이브를 ‘다시’ 읽으며 소영현은 역사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녀가 존재했음을 새롭게 쓴다. 하녀의 존재 양식을 사유한 소영현의 작업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였던 하녀의 삶은 그 구체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소영현의 선행 연구 주제인 근대 청년 담론 또한 하녀 아카이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sup>16)</sup> 사회의 주체이자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로 호명되었던 근대 청년 담론과 하녀 아카이브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위상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청년은 더 이상 사회를

15) 소영현, 앞의 책, 26쪽.

16) 이와 관련해서는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근대 청년의 문화정치학』, 푸른역사, 2008, 『부랑청년 전성시대-근대 청년의 문화 풍경』, 푸른역사, 2008 참조.

이끌어가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88만원 세대부터 영끌 세대까지 시대를 반영하는 청년 담론들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은 사회적 타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위기에 내몰린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보면, 소영현의 청년 담론과 하녀 아카이브는 연구는 타자 혹은 경계인의 개념으로 연속적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하녀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소영현의 진단에 따르면, 하녀의 삶을 읽는 방법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카이브를 새롭게 독해하는 방식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읽기와 쓰기의 윤리적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영현이 『하녀』 1부에서 제시한 아카이브 다시 읽기의 방법론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는 문제 즉 하녀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쓰기의 문제로 연동된다. 특히, 2부, 3부, 4부, 5부의 주제이기도 한 하녀의 ‘노동’과 하녀의 ‘범죄’를 주제로 한 소영현의 아카이브 다시 읽기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과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 대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대체 불가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하급의 노동으로 취급되어왔다. 대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온 사회적 구조의 연원은 하녀를 비가시화 혹은 범죄자로 재현해온 한국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곧 젠더화된 여성의 일에 가치가 크게 부여되지 않아왔던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계급화와 젠더화를 결합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를 분석하며 소영현은 여성의 몸과

17) 이와 관련해서는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 우석훈,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88만원세대 새판짜기』, 레디앙, 2009; 임명목, 『K를 생각한다-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고재석, 『세습 자본주의 세대-88만원 세대는 어쩌다 영끌 세대가 되었는가?』, 인물과사상사, 2023 등을 참조.

여성의 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여성 노동의 위치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하녀』1부에서 아카이브 다시 읽기와 메타적 역사 쓰기의 이론적 틀이 제시되었다면, 2, 3, 4, 5부에서는 하녀의 노동, 직업, 자본, 범죄, 욕망, 빈곤, 관리 등의 주제로 아카이브 다시 읽기가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하녀 범죄와 관련된 소영현의 아카이브 다시 읽기는 “저절로 의미화되는 아카이브란 존재하지 않는다.”<sup>18)</sup>는 아를레트 파르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준다.

### 3. 여성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소영현은 4부 「하녀는 위험하다?-범죄, 관리론, 욕망」에서 여성 범죄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뒤엉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 범죄를 보도한 기사와 논설 및 여성 범죄를 재현한 문학 작품이 하층의 여성들을 범죄자로 가시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독해했다. 소영현의 주장에 따르면, 하녀 관련 아카이브에서 하녀는 대부분 범죄 형태로만 포착이 된다. 하녀가 절도범과 살해범이 되었을 때 생애 처음으로 이름과 나이와 주소가 공적 영역에서 조명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여성범죄는 여성의 생애와 여성의 노동이 아닌 여성의 몸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다.

『하녀』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2019년 연극으로 다루어진 <그때, 변홍례>는 1931년 부산에서 일어났던 마리아 참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조선인 하녀가 엽기적으로 살해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살인 사건은 미궁

18)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역, 문학과지성사, 2020, 116-117쪽.

에 빠진 채, 살해된 하녀의 몸에 대중들의 호기심이 쏟아졌다.<sup>19)</sup>『하녀』에서 1930년대 살해 사건 관련 기사들은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소영현은 여성을 몸으로 환원시키며 여성을 조명하는 방식을 고수한 아카이브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독해했다. “하녀에 대한 관심을 범죄 사건과 연루하여 다루는 경향은 당연하게도 하녀를 사회적 타자로 배제하고 의심과 경계의 대상으로 배척하는 경향을 강화”했음을 분석하며, 하녀에게 가해진 “육체적, 성적 학대”가 범죄의 동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원인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대개 개요로만 전달”되는 기사가 내포하는 위험성 즉 “가해/피해라는 인과를 서술하지 않고 가해자로서의 하녀의 면모를 일방적으로 강조한”<sup>20)</sup> 대부분의 기사를 비판적으로 독해했다.

마치, 하트만이 아카이브의 폭력에 저항하며 “어떻게 해야 서사는 삶을 말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가? 신음, 비명,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 수수밭에서 불이 타들어가는 소식, 죽은 자를 위한 애도, 승리의 함성, 어떻게 이들을 듣고 그 모두에 말을 할당할 것인가? 불가능한 발언지의 근원지로부터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폐허로부터 삶을 부활시키는 일은 가능한가?”<sup>21)</sup>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것처럼, 소영현은 여성 범죄 아카이브의 구성적 한계를 치밀하게 파고 들어갔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하녀가

19) <그때, 변홍례>의 연출가 윤시중은 관객들에게 “1931년 부산 초량동의 일본인 집에서 일하던 조선인 하녀 변홍례가 희생된 사건이다. 멀다면 먼 옛이야기이고, 그녀가 태어난 시기로 보면 본인의 할머니와 같은 시대를 사신 분이다. 먼 이야기인가? 아니면 여전히 오늘과 연결이 되는 사건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2399> 참조.

20) 소영현, 앞의 책, 140-141쪽.

21) Saidiya Hartman, “Venus in Two Acts”, *ibid.*, p.3.

근대문학 작품에서 남성 작가들에 의해 가정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존재로 재현된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소영현은 남성 작가들의 여성 혐오적인 재현 방식을 문제 삼았다.<sup>22)</sup> 나도향과 김동인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중노동에 과도하게 시달리는 ‘어린 색시의 삶’이 ‘팔려온 하녀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며, 당시 조선 농촌 여성의 처참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빈농층에서 미혼 여성은 춘궁기에 혹은 부채 때문에 가부장에 의해 푼돈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금성 가치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나이 어린 기혼 여성의 삶은 하녀나 팔려간 노예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내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에 불과했던 계약관계로 일하는 여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더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sup>23)</sup> 식민지 조선 농가에서 매매혼, 가정폭력, 부부 강간, 부부 살인, 영아 살인, 방화 등의 폭력과 범죄가 ‘상시적으로 난무’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범죄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소영현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동’에 시달렸던 촌부들은 “식민지기 빈궁한 농촌의 생계와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절대적 요소였으나 촌부가 남편 살해범으로 호명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노동과 고통은 삭제되었다. 촌부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따라서 “촌부에 대한 관심은 여성노동에 대한 환기로서 재의미화되어야 한다.”<sup>24)</sup>는 소영현의 주장은 타당하다.

소영현의 지적처럼, ‘남편을 죽인 여성들’에 대한 기사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20년대 이후로 ‘남편을 죽인 여자들’에 대한 기사가 꾸준히 등장하며 “남편을 죽인 여성들은 ‘본부 살해’라는 명칭이 아니라

22) 소영현, 앞의 책, 137쪽.

23) 소영현, 앞의 책, 160쪽.

24) 소영현, 앞의 책, 176쪽.

그 여성들의 잔혹한 면모를 강조하는 명명법으로 호명”되었고, 1930년 전 후로는 나이 어린 색시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기사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sup>25)</sup> 빈농의 촌부들이 왜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은 아카이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아카이브를 “구습을 체현함으로써 이름 없는 비가시의 존재가 되거나 공동체에서 배척될 존재(간통년, 살인범)가 되면서 가시화되는 역설의 비극”<sup>26)</sup>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 범죄 아카이브에서 자율적이고 실험적인 삶을 추구했던 여성들의 생애를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sup>27)</sup>

오히려 소영현은 살인자로만 호명된 여성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일례로 김기영의 영화 <하녀>는 1956년 당시 한 식모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었지만, 식모가 살인자가 된 과정에 소영현은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식모는 왜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저수지에 빠뜨려 익사시킨 범죄자로만 가시화되었을까? 그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소영현의 주장이다. 실제로 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했던 18세의 여성은 식모로 일했던 집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

25) 소영현, 앞의 책, 161쪽.

26) 소영현, 앞의 책, 166쪽.

27) 사이디아 하트만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범죄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떻게 정책화되고 구성되었는지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가 노예제도와 가부장제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법률과 규정을 운영해온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성적 자유와 거주 이동의 자유 및 가족 구성권 등과 관련해 소위 흑인 여성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일탈’ 행위로 규정되었다. 하트만은 흑인 여성의 삶을 아카이브 밖에서 상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흑인 여성을 오로지 ‘사회 문제로만 인식했던 사회적 상상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방황하는 삶, 변화무쌍한 삶을 추구했던 흑인 여성들의 실험적이고 자율적인 삶은 재평가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Saidiya Hartman, *Wayward Lives, Beautiful Experiments: Intimate Histories of Social Upheaval*, W. W. Norton & Company, 2019 참조.

사건을 문제 삼은 부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해고당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 소영현은 살인자가 된 18세의 식모가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다는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시대를 가로질러 반복되는 하녀 잔혹사”<sup>28)</sup>를 환기시켰다.

형사사건 아카이브를 ‘작게 조각나 있는 세계’로 표현했던 아를레트 파르주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소한 조서들’은 작업자에게 ‘조사와 연구의 장소’라고 규정하며, 형사 사건들은 시시하고 사고들은 너무 평범하고 인물들도 특별할 것이 없으며 아카이브는 주제별로 모여 있는 파편들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삶의 파편들, 다툼의 작은 조각들이 거기서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저항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sup>29)</sup>고 통찰했다. 형사사건 아카이브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소영현의 여성 범죄 아카이브 다시 읽기 또한 ‘조사와 연구의 장소’로 삼아 “고발과 취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무질서의 작은 조각들”을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녀 범죄 관련 아카이브 다시 읽기는 “강렬하면서 모순적이고, 사나우면서 언제나 복잡다단한 삶들”<sup>30)</sup>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와 같은 역사문헌학적 작업은 소영현 자신의 표현처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여전히 반복되는 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보기”<sup>31)</sup> 위한 일로 해석된다. 『하녀』의 여성 범죄 관련 논의는 미셸 드 세르토가 제안했던 방식이었던 ‘과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심문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sup>32)</sup> 그

28) 소영현, 앞의 책, 183쪽.

29) 아를레트 파르주, 앞의 책, 99쪽.

30) 아를레트 파르주, 앞의 책, 100쪽.

31) 소영현, 앞의 책, 183쪽.

32) Michel de Certeau, Tom Conley translated, *The Writing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렇다면 하녀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때문에 소영현은 하녀 아카이브 다시 읽기와 함께 하녀 역사 다시 쓰기 즉 메타적 역사 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 4. 메타적 역사 쓰기의 전망

소영현은 『하녀』의 「에필로그」에서 식모를 비롯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하녀의 삶이 반복해서 복원되고 회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이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어떤 진화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식모는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가정부와 가사도우미라는 용어가 1980년대에 등장했다.<sup>33)</sup> 왜 진화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메타적 역사 쓰기로 이어졌다.

하녀 아카이브 다시 읽기로 메타적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자신의 글쓰기를 소영현은 수전 벅모스의 작업을 경유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하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은 자본주의와 노동시장이 작동시키는 젠더적 차별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인 동시에, 역사가 삭제한 하위주체의 복원 시도이며 나아가 하위주체를 망각하게 한 근대적 인식 전반을 문제삼는 일이다.”<sup>34)</sup> 더불어 “하녀에 대한 논의를 근대 이후 긴 시간에 걸쳐 돌이켜보는 작업은 근대 이후의 변화를 읽는 시선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비가시의 존재와 영역을 돌아보는 확장적 시선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3) 식모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정찬일, 『삼순이: 식모, 버스안내양, 여공-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책과함께, 2019 참조.

34) 소영현, 앞의 책, 243쪽.

‘하녀’의 존재를 사유하며 ‘하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소영현의 작업에 ‘분과학문’의 ‘규율’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벡모스의 「헤겔과 아이티」를 참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추리소설처럼 쓴 글”<sup>35)</sup>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벡모스는 상상력을 동원해 「헤겔과 아이티」를 완성했다. 벡모스는 1804년 가을에서 1805년 말까지 만 1년 넘는 시간 동안 잡지 『미네르바』가 프랑스 식민지의 최후 독립 투쟁과 관련된 기사를 총 100쪽이 넘는 연속 기획물로 실었다는 사실 그리고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미네르바』의 정기 독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헤겔과 아이티」집필에 착수했다. 벡모스는 실험적인 글쓰기를 통해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발전시킨 지배와 예속의 변증법이 아이티 혁명과 의 연관성 속에서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벡모스는 역사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해 헤겔의 이론을 도전적으로 해석했다. ‘전통적 위계’에 저항하는 메타적 역사 쓰기를 실천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헤겔과 아이티」는 의미의 전통적 위계를 벗어나는 지식상의 변화를 옹호한다. 이 글은 사실이란 고정된 의미를 지닌 데이터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할 수 있는 연결 통로로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상상력을 엮매지 말고 오히려 풀어놓아야 한다. 사실이 선행 결정된, 권위 있는 명제에 대한 증명으로 열거되는 가운데 확고한 지식이라는 허구에 포섭되지 않으면 앎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학문적 논쟁의 의미는 지적 세력권의 관념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sup>36)</sup> 벡모스의 주장처럼, 하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소영현의 작업 역시 분과학문의 규율에 지배받지 않을 때 지속될 수 있다.

35) 수전 벡모스, 『헤겔, 아이티, 보편사』, 김성호 역, 문학동네, 2012, 15쪽.

36) 수전 벡모스, 앞의 책, p.29.

소영현의 메타적 역사 쓰기는 “아카이브의 사건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체하는”<sup>37)</sup> 글쓰기로 이어질 것이다. 하트만은 아카이브에서 다른 이야기를 ‘생성’하는 일의 곤혹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스캔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이 아카이브에서 다른 설명을 생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을 상상하기? 아카이브의 진술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떠올려보기?”<sup>38)</sup> 아카이브를 윤리적으로 다시 읽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적 존재로 내몰린 타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소영현은 빈곤과 낙인이 (악)순환의 회로 속에서 재생산되는 구조를 분석하며 『하녀』의 후속 연구에서 하녀가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이다. “‘역사적 복권’과 ‘가시성’이라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목적과 거리를 둔 자리에서, 어째서 그 목적이 당연한지를 묻고 또 묻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sup>39)</sup>이라는 수행적인 문장은 미래지향적이다.

---

37) 아를레트 파르주, 앞의 책, p.139.

38) Saidiya Hartman, “Venus in Two Acts”, *ibid.*, p.7.

39) 소영현, 앞의 책, p27.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소영현, 『하녀-빈곤과 낙인의 사회사』, 문학동네, 2024.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역, 문학과지성사, 2020.  
제임스 볼드윈·라울 팩, 『아임 엠 낫 유어 니그로』, 김희숙 역, 모던아카이브, 2023.  
캐스린 스토킷, 『헬프1·2』, 정연희 역, 문학동네, 2011.

### 2. 논문과 단행본

- 김주희, 『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현실문화, 2020.  
고재석, 『세습 자본주의 세대-88만원 세대는 어쩌다 영끌 세대가 되었는가?』, 인물과 사상사, 2023.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근대 청년의 문화정치학』, 푸른역사, 2008.  
\_\_\_\_\_, 『부랑청년 전성시대-근대 청년의 문화 풍경』, 푸른역사, 2008.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  
우석훈,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88만원세대 새판짜기』, 레디앙, 2009.  
임명묵, 『K를 생각한다-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정찬일, 『삼순이: 식모, 버스안내양, 여공-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책과함께, 2019.  
Emily A. Owens, *Consent in the Presence of Force: Sexual Violence and Black Women's Survival in Antebellum New Orlean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3.  
Michel de Certeau, Tom Conley translated, *The Writing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Saidiya Hartman, "Venus in Two Acts", *Small Axe* 26, June 2008.  
Saidiya Hartman,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Farrar Straus & Giroux, 2008.

하녀의 역사를 왜 다시 써야 하는가? - 아카이브 읽기와 메타적 역사 쓰기의 가능성 / 장영은 515

Saidiya Hartman, *Wayward Lives, Beautiful Experiments: Intimate Histories of Social Upheaval*, W. W. Norton & Company, 2019.

Saidiya Hartman, *Scenes of Subjection: Terror, Slavery, and Self-Mak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W. W. Norton & Company, 2022.

### 3. 기타자료

사이드야 하트만, 정규식 옮김, 「두 행위의 비너스」, <https://en-movement.net/436>,  
<https://en-movement.net/437>.

변시중,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42399>.

## Abstract

### Why Rewriting the History of Housemaids Matters - Exploring Archival Possibilities and Meta-Historical Approaches

Jang, Young-Eun(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focus on Young-Hyun So's *The Housemaid: A Social History of Poverty and Stigma* (2024), which interprets subjects as archives and intersects with Saidiya Hartman's work. Saidiya Hartman conceptualizes the racial violence that persists in modern society as the "the afterlife of slavery," analyzing how th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experienced by Black women are treated within the archive. Similarly, Young-Hyun So trac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how the voices of female domestic workers have been silenced in Korean society and conducts research that seeks to uncover the truth conveyed by the archive. Both Hartman and So share a common focus on exploring ways to actively listen to the repressed voices beyond the official records of the archive, proposing the possibility of a new historiography that reconstructs the narratives of marginalized subjects. Hartman has long been preoccupi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archives of Black slavery, focusing on what can and cannot be told from the archive. So diagnoses that the reason why domestic workers have remained invisible and unacknowledged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given to how their lives are read. The act of rereading the archive can be viewed as an ethical practice that reflects on how we might live together with the marginalized others who have been rendered invisible in Korean society.

하녀의 역사를 왜 다시 써야 하는가? - 아카이브 읽기와 메타적 역사 쓰기의 가능성 / 장영은 517

(Keywords: *The Housemaid: A Social History of Poverty and Stigma*(2024),  
Young-Hyun So, Saidiya Hartman, Archive, Slavery, Meta-Historical  
Writing)

논문투고일 : 2024년 9월 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8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21일